

世界 主要國의 大學教育課程 比較研究

◇ 이 研究論文은 韓國大學教育協會의 주관하에 1985 ◇
 ◇ 학년도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로 李榮德(서울大), 金 ◇
 ◇ 在福(仁川敎大), 李星鎬(延世大), 李學柱(蔚山大) ◇
 ◇ 敎授와 玄京錫(本 協會) 研究員에 의해 수행된 것 ◇
 ◇ 이다. 紙面 관계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하고 ◇
 ◇ 李榮德 敎授가 執筆한 要約과 結論 및 提言 부분만 ◇
 ◇ 을 게재한다. ……………〈編輯者 註〉 ◇

1. 要 約

本 研究는 敎養教育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몇몇 선진국의 大學教育課程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大學教育課程의 개선 및 발전 방향 탐색에 의미 있는 示唆를 얻으려는 데 根本目的이 있다. 本 研究에서 分析對象이 된 教育課程은 韓國, 美國, 獨逸, 日本의 4 개국의 것이었으며, 共同研究者들이 각각 1 개국의 교육과정을 담당하여 분석·검토하였다.

上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本 研究의 결과를 요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4 개국의 教育課程 分析結果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실태,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國家別로 그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一般的인 傾向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本稿에서는 後者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研究者들이 전체 體制에서는 統一性을 가지면서도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약간씩 서로 다른 방식으로 教育課程이 분석되었기 때문

에 하나의 準據體制로 要約되기가 어려운 데에 있다.

1) 韓國의 大學教育課程

敎養教育課程을 중심으로 한 韓國 大學의 教育課程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실태 분석의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 조사의 결과이다. 먼저 實態分析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 大學의 대부분(96%)이 敎養教育의 目標를 教育法施行令에 규정되어 있는 ‘指導者의 人格을 陶冶함’에 두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많은 대학이 전공교육을 위한 기초교육(70%), 올바른 가치관의 배양(41%), 그리고 역사·의식·세계관 및 국민의식 함양(29%)에 두고 있다.

(2) 敎養教育에 대한 이수학점은 대부분의 大學(88%)이 法定履修 最低基準인 140 학점 중 42 학점(30%)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평균 46 학점(33%)을 교양과목 이수에 割當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2/3 인 31 학점이 必須로, 그리고 나머지 1/3 인 15 학점이 選擇科目으로 부과되고 있다.

(3) 필수과목 학점 중에서 대략 14 학점은 국

가에서 지정한 과목의 학점이고, 17 학점은 大學別로 지정한 과목의 학점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은 國民倫理, 韓國史, 敎練, 體育이며, 대학별로 부과하는 공통필수 과목은 國語, 英語, 第2外國語, 哲學 등이고 그 외 분야별 필수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교양과목 학점의 過多, 철학과목의 輕視 경향, 분야별 교양과목의 전공기초적 성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4) 선택과목이 할당하고 있는 학점(15 학점)은 주로 系列別로 指定된 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 몇 개의 領域에 설정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택하게 하는 것, 學生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이수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선택의 폭이 꼭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5) 敎養科目의 이수는 1 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교양과목의 전체 학점 중에서 약 70%를 1 학년에, 14%를 2 학년에, 그리고 8%씩을 3, 4 학년에 각각 배당하고 있다.

(6) 필수와 선택을 막론하고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학급당 학생수는 他科目에 비해 매우 많으며, 몇몇 과목에서는 300 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학급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助教의 지원이 충분치 못하며, 전혀 조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7) 교양과목의 담당교수는 약 반 정도가 時間講師였으며, 이들 시간강사의 반 이상(55%)이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敎育經歷 3년 미만(47%)의 新進들이다. 전공교수의 경우에도 약 3/5 이상(62%)이 조교수 이하의 下位職級者들이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8) 교양과목의 운영은 敎務處(課)에서 주관하되, 해당학과와 협의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그 외 교무처 산하에 敎養課程(研究)委員會를 두어 이곳에서 관장하는 방식(54%), 그리고 敎養學部나 敎養課程部를 두어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大學(17%)이 있다.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標集하여 실시한 교수(213명)와 학생(420명)들에 대한 意見調查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현행 敎育課程에 대하여 敎授·學生 모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며, 그 정도는 학생이 더 강하다. 교수들은 敎養科目을, 학생들은 專攻科目을 더욱 불만스러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이수학점에서의 敎養科目(30%)과 專攻科目의 구성 비율에 대하여 교수들은 반 이상(56%)이, 학생들은 39%가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 외의 반응으로서 교수들은 23%가 교양과정을 늘릴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교양과목에서의 필수와 선택 과정의 비율에 대하여, 교수·학생 모두가 현재보다 필수를 줄이고 선택을 늘릴 것을 반 이상(교수 51%, 학생 61%)이 주장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學生이 더 강하다.

(3) 교양교육의 목표로서 교수들은 '指導者로서의 全人的 人格 陶冶'를 학생들은 "여러 學問分野의 相互關係性 이해"를 보다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다.

(4) 교양과목의 下級學年 집중 이수 방식은 교수·학생 모두에게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교수 29%, 학생 22%), 전체적으로 볼 때 專攻基礎科目은 下級學年에서, 다른 과목은 全學年에 걸쳐 분산 이수토록 하되 上級學年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5) 교양과목의 大單位學級 編成 이유로는 교수·학생 모두 먼저 財政上 이유를, 다음으로는 敎養敎育에 대한 認識不足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物理的 環境의 개선보다 오히려 '學生들의 小集團 分班과 助教活用'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위 학급에서의 指導方法으로는 說明爲主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학생들이 수강한 교양과목의 內容水準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여 높았던 것은 일부(9.2%)에 지나지 않고, 반 이상(53%)이 쉬웠거나 낫았다고 반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목 자체의 構成과 組織이 未備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73%). 이와 비교하여 교수들은 학생들의水準에 맞추어 講義內容을 높이거나 낮추는 적응성을 보이고 있다.

(7) 교양과목의 統合科目에로의 構想에 대해

서는 일부(12%)가 과감히 實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2/3 이상(67%)이 시험단계를 거친 漸進的 施行을 찬성하고 있으며, 21%는 原則的으로는 찬성하나 아직 時機尙早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敎養教育에 대한 인식과 여건의 개선이 없는 한 實效를 거둘 수 없음을 들 수 있다.

(8) 교양과목 擔當敎授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경험이 풍부한 元老敎授들일 것(58%), 학생들은 熱意가 있으면 젊거나 時間講師라도 무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9) 敎養教育의 問題點으로는 교수·학생 모두가 ‘敎養科目에 대한 전체적인 認識不足’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學級規模의 大型化’를 다음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서 교수들은 ‘敎養教育目標에 대한 具體的 明細化의 미비’와 ‘專任敎授陣의 부족’을, 학생들은 ‘注入式 說明爲主의 敎授方法’과 ‘多樣한 課外프로그램의 결여’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 美國의 大學教育課程

美國의 大學教育課程은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美國 대학교육과정의 歷史的인 發展過程, 현재 美國 大學教育課程의 일반적인 現況, 美國 大學敎養教育課程의 實態와 問題, 美國 大學專攻教育課程의 實態와 問題이다.

첫째, 美國 대학교육과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美國의 대학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多樣性 및 個別的인 自律性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2) 전공교육과정보다는 人文·古典教育 위주의 교양교육과정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양교육에 대한 중시는 19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1820년대부터 전공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學科中心으로 전공교육과정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美國 大學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자유선택 교육과정의 3요소로 발전하였다.

(3) 今世紀에 들어와서 美國의 각 대학에서는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새로운 改革的인 試圖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현재 美國 대학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상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학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美國 大學의 學部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最低學點은 120 내지 128 학점이다. 그 가운데에서 교양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전공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자유선택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서, 이 세 가지 과정은 1:1:1의 비중으로 나타나 있다.

(2) 4년간의 修學期間中에서 대체로 처음 1, 2년은 교양교육과정에, 그리고 3, 4년이 되면서 점점 전공교육과정 이수에 치중하고 있다.

(3)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에는 각기 학과별로 지정된 필수과목과 계열별로 지정된 필수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이 배분되어 있으나 그 정도는 대학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세째, 美國 大學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美國의 4년제 大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은 크게 보아 공통필수의 中核 교육과정, 學問系列別로 이루어지는 配分履修課程, 自由選擇型 교육과정의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2) 교양교육과정의 주류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單一學問의 概說的 교과목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접어들면서 間學問的인 통합 교과목들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敎授方法으로서는 ‘1학년 세미나’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模索되고 있다.

(3) 美國 大學의 교양교육과정은 敎養教育目標의 不分明, 교양교육에 대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輕視 내지는 外面,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連鎖性의 脆弱, 교양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에 관한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다.

네째, 美國 大學의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美國 大學의 전공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學科中心의 閉鎖的인 교육과정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학과의 극도의 分化와 繁殖으로 전공교육과정이 과도하게 專門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전공교육과정의 극도의 專門化는 專攻科目 相互間의 連繫性 및 統合性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美國 大學의 전공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교수들의 專門性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適合性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3) 美國 大學의 전공교육과정은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의 새로운 解決代案으로서 複數 및 主·副專攻制度, 問學問的 專攻制度, 自己開發 專攻制度 및 無專攻制度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獨逸의 大學教育課程

獨逸 大學의 교육과정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독일 대학제도의 概觀이고, 둘째는 독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며, 셋째는 독일 대학의 전공교육과정에 관해서이다.

첫째로, 독일 대학제도를 개관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特性들로 요약될 수 있다.

(1) 독일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大學入學에 原則的인 制限이 없다는 점, 모든 대학이 國立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授業의 형태는 講義와 세미나로 二元化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대학의 類型은 綜合大學校, 工科學校, 教育大學, 神學大學, 藝術大學, 專門大學, 統合大學 등으로 구분된다.

(3) 學期의 구분은 2학기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름학기는 4월에서 9월까지이고 겨울학기는 10월에서 3월까지로 되어 있다.

(4) 대학에서의 學問課程은 기초과정(Grundstudium)과 전공과정(Hauptstudium)으로 되어 있다.

(5) 教育·研究組織은 학부(Fakultät)가 전통적인 기본 구성단위이나, 學科(Abteilung)나 專門領域(Fachbereich)을 그 단위로 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최근의 대학교육 改革動向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들자면 대학의 정규학기인 8학기에 맞춘 교육과정의 구성 문제와 추수과정(Postdoctorate)의 설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양과정에 있어서는 그 특징으로 (1) 교과목이 開放性을 띠고 있고, (2) 受講의 制限이 없으며, (3) 일부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評價制度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전공교육과정에 있어서는 敎師教育課程과 教育學 敎科課程을 實例로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전공교육과정에서는 統合性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통합되는 특징을 보면 분리된 과정으로 출발하여 공통과정으로, 그리고 그 후 다시 분리된 과정으로 專門化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공통과정으로 시작하여 점차 분리된 과정으로 부과하는 대학도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複合的인 統合課程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科目間의 統合을 위해서는 흔히 여러 가지 세미나로 主題에 따라 敎科內容을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전공분야에서도 選擇의 폭을 넓혀 놓고 있다. 이것은 전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과목 중에서 그에 합당한 과목을 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3) 專攻에 따른 臨床實習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敎師教育과 같은 특수과정에서는 理論과 實際間의 연결을 위하여 실습과 같은 임상지도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4) 敎授方法으로는 講義와 세미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수방법에 따라 다루는 과목 및 내용이 다르다. 강의에서 주로 취급되는 것은 概念과 原理 같은 理論이며, 세미나에서 주로 취급되는 것은 專攻領域으로 사회 및 학문 발전의 추세, 그리고 問題와 관련되는 것들이었다.

4) 日本의 大學教育課程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日本 大學의 교육과정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일본 대학의 성립 과정과 교육과정의 발전이며 둘째, 일본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실태이며 셋째,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넷째,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첫째, 일본 대학의 성립 과정과 발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대학은 여섯 단계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 현재의 대학은 대개 제 2차 世界大戰 후 근본적인 制度의 改革이 단행되어 성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의 대학은 이전의 엘리트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國民에게 널리 開放되는 一般化·大衆化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量과 質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2) 日本의 고등교육은 大學, 短期大學, 高等專門學校, 專修學校인 專門學校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중요시되는 것은 大學(4년제)과 短期大學(2~3년제)이다.

(3) 제 2차 세계대전 終戰前의 日本 교육제도는 複線의인 것이었으며,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는 職業敎育과 完成敎育을 목표로 하여 專門敎育에 중점을 두었고, 일반 교양교육은 대학 진학 예비코스인 高等學校와 大學 豫科가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終戰後 單線의인 新制大學이 성립되면서 교양교육도 大學에서 함께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美國의 영향을 받아 일반 교양교육에도 많은 강조를 두게 되었다.

둘째, 日本 大學 교양교육과정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일본 대학교육과정에서의 교양과목은 一般敎育科目, 保健體育科目, 外國語科目 그리고 專門敎育科目의 4群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3群은 교양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의 1群이 전문교육과정에 해당한다. 교양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은 이수학점수에 있어서 대략 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短期大學이나 高等專門學校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다.

(2) 일본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목적은 調和 있는 人間性을 개발하고 人類社會의 행복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르려는 것이다. 교양교육과정에서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일반교육과목이며, 여기에는 人文, 社會, 自然의 각 系列에 속한 과목들이 포함된다. 이들 이수과목을 보면 매우 다양하여 高等專門學校를 제외하고는 대학마다 서로 相異하다.

(3) 대학에 따라서는 교양교육과정에 과목간

의 연관을 생각하고 綜合的 眼目을 키우기 위한 總合科目 또는 複合科目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또 전문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많은 대학, 특히 理工系에서는 기초교육과목을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4) 과목의 이수는 대개의 경우 1, 2학년(短期大學은 1학년)은 敎養科目에, 3, 4학년(단기 대학은 2학년)은 專門科目에 집중되어 있고, 授業은 강의, 연습, 실험, 실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總合科目에서는 세미나, 팀 티칭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學力의 評價는 合格과 不合格으로 나누어지고, 합격은 다시 A(優), B(良), C(可)의 3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세째, 일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集約하여 보면, (1) 그것은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양면에서 볼 때, 교양교육과정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전문교육과정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2) 일본이 처한 歷史的·國際的 狀況에 비추어 일본의 國家意識을 고취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3) 교양교육과목의 배당이 특정 학년(1, 2학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4) 교양교육과목에서 中等敎育과 중복을 없애면서도 連繫를 가져야 한다는 점, (5) 일반교육 특히 基礎敎育 분야에서 學力의 低下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 (6) 總合科目의 운영이 소기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 일본 대학의 교육 특히 교양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 改善의 方向을 요약해서 밝히면 (1) 대학교육의 多樣化를 위한 노력, (2) 과목간의 統合性을 기하려는 노력, (3) 기초교육의 充實化를 위한 노력, (4)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 (5) 교육의 國際化를 기하기 위한 노력, (6) 中等敎育 및 生涯敎育과의 連繫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結 論

本 研究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과 동향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結論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된다.

첫째, 각 國家의 대학은 자기 다른 歷史의 特性에 처하여 발달되어 왔으며 대학의 敎育課程은 그 特性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大學敎育課程은 多樣性 및 個別的인 自律性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고, 獨逸의 경우를 보면 보수적인 傳統性을 바탕으로 하여 研究와 職業과 人間이라는 측면에서 대학敎育이 논의되어 왔으며, 日本의 경우는 제 2차 세계대전까지는 독일의 영향을 받다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美國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왔다.

둘째, 각국 대학敎育과정은 人間敎育의 強化와 社會的·個人的 有用性이라는 實用的인 것의 강조라는 양 측면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양敎育과 전공敎育을 어느 만큼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論爭을 계속해 오고 있다. 美國의 경우 19세기 중엽까지는 두드러지게 교양敎育을 중시해 왔으나 그 후, 專攻敎育의 重視로 기울어졌고, 獨逸은 人間敎育의 強化에서 職業敎育의 強化로 변모해 가다가 다시 人間敎育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고, 日本은 전공敎育의 強化에서 敎養敎育의 強化로 기울어졌으나 다시 專攻敎育이 강세를 이루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세째, 각국 대학의 敎養敎育에서는 綜合的인 眼目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學問間的 連繫性을 중시하여 統合的 科目 또는 間學問的인 성격을 띤 講義의 개설을 시도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間學問的인 과목들이, 日本에서는 總合科目 또는 複合科目이, 獨逸에서는 主題나 問題中心의 강좌가 팀 티칭으로 실시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네째, 각국 대학의 敎養敎育課程에서는 基礎敎育科目의 개설을 확대·적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日本·獨逸에서는 外國語 과목에, 美國에서는 專攻基礎科目에, 日本의 理工系 大學에서도 역시 전공기초과목의 이수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다섯째, 각국 대학의 교양敎育 과목에서는 과목의 開放性을 인정하여 選擇科目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獨逸의 경우를 보면 모든 敎養敎育科目은 누구나 選擇할 수 있고, 심지어 시험을 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敎養敎育的 特性을 견지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美國의 경우에도

상당한 과목은 그 이수를 自由選擇(專攻科目까지도 많은 선택을 허용)으로 課하고 있다.

여섯째, 각국 대학의 敎育과정은 敎養敎育과 專攻敎育을 막론하고 劃一性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特性에 따라 自律性과 個別性을 최대한 견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美國과 獨逸의 대학敎育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곱째, 각 국가의 대학敎育과정 특히 專攻敎育課程에서는 모두 學科中心의 閉鎖的인 專攻敎授 위주의 과목을 개설하고 극도의 專門化와 分化로 인해서 다른 분야와의 連繫性 및 統合性을 상실한다는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4개국의 敎育課程에서 共通的으로 추출될 수 있는 경향이다.

이상과 같은 結論을 내릴 보았지만 계속 연구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 시간과 예산의 지나친 제한으로 本 研究는 하나의 탐색적 시도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본격적인 비교연구 내지 철저한 地域研究들이 이루어져서 보다 풍부한 자료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特性에 맞는 大學敎育課程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보다는 많은 研究와 實驗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大學敎育課程이 속히 개선·발전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을 절감한다.

3. 提 言

매우 제한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大學의 敎育課程 改善을 위해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언 1. 각 大學에는 敎育課程을 總體的으로 연구·관리하는 專擔機構가 설치·운영될 것이 요망된다. 현재 대학에서는 敎務處가 중심이 되어 교과목의 개설이나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업무는 敎育課程의 質的 改善보다 운영에서의 事務的인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대학의 敎育課程이 大學敎育에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각 대학은 自律

的으로 교육과정 전반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評價·分析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은 常設機構로 '教育課程研究委員會'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대학의 教育課程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언 2. 각 大學은 자기 다른 特殊性에 따라 個性 있는 教育課程을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각 대학은 그 대학의 設立趣旨, 지역에 따른 特殊性, 그리고 對象 學生集團의 質態와 水準 등이 자기 다르다. 그리고 教育課程은 이들 특성과 부합되게 편성·운영될 때 보다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特殊大學을 제외한 一般大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유사한 과목으로 일관하는 劃一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의 한 專攻學科에서 그 전공분야의 모든 領域을 망라하여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국에 散在해 있는 각 대학들은 設立趣旨, 地域의 特性, 學生의 質態 등에 따라 特殊性이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볼 때 매우 풍부한 多樣性이 드러나도록 함이 요망된다. 물론 각 대학마다 學生들의 자유로운 選擇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包括性을 가진 教育課程을 편성한다는 것이 基本條件이 되어야 한다.

제언 3. 學問의 系列에 기초한 廣域型的 教育課程을 편성하여 학과간의 障壁과 閉鎖性을 제거하여야 한다. 모든 學問은 홀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학문간에 상호 相關性을 가지고 相補的인 관계 속에서 발전된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들은 지나친 學科中心의 교육과정 운영, 教授爲主의 科目設定, 고정된 時間表의 작성 등으로 閉鎖性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專攻教育에서 엄격한 學科中心 教育課程의 운영을 하고 있는 오늘의 방식은 學問相互間的 紐帶性과 共同性을 실현할 수 있는 開放的인 교육과정의 運營方式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校 또는 大學內에서 系列別 科目履修가 더 용이하게 되어야 하고, 학과 중심의 학점 이수보다도 선택

에 의한 科目中心의 이수방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언 4. 必須科目 및 그 학점의 比率을 축소시키고 選擇科目 및 그 학점의 비율을 擴大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현재처럼 거의 모든 대학이 거의 모든 과목을 모든 학생에게 一律的으로 義務化시키는 것은 바로 劃一化와 硬直性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教養課程이나 專攻課程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個人的 必要와 興味 및 將來計劃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教授爲主의 科目開設에서 탈피해야 하고,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 固定時間表 作成方法에서 벗어나 학생이 택할 수 있는 綜合時間表 작성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언 5. 教養教育課程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학점의 比率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하고, 교양과목의 性格에 부적합한 것은 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教養課程에 약 30%를 할당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日本은 약 40%를, 美國은 34%를 할당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의 경우에는 自由選擇을 33% 정도 인정함으로써 훨씬 많은 교양과목 이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과정은 比率上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專攻基礎나 道具의 性格의 학과목으로 부과하고 있어 순수한 一般教養科目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敎練과 같은 과목이 教養必須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하되 교양교육에다 억지로 붙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一般教養教育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教養科目과 履修學點數를 더욱 확충함은 물론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客觀的 評價가 가능한 道具科目은 일정한 評價制度를 통하여 학생의 능력을 評定하고 이를 통과하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해 주는 方案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언 6. 대학의 敎育課程은 縱的·橫的 連繫性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학의 敎育과정은 아래로는 高等學校 課程, 위로는 大學院 또는 사회에서의 生涯敎育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옆으로는 學問領域 相互間에 關聯性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敎育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原則의 고려가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많은 敎育내용의 重複 또는 反復現象을 낳고 있다. 그 중복은 高等學校와 大學, 大學과 大學院, 學科間의 科目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縱的·橫的 科目間의 連繫가 고려되어 敎育내용의 反復現象을 최대한으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重複된 敎科科目과 類似科目의 統合調整은 불가피하며, 이 統合調整은 각 科目의 敎授要目을 작성,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學科間의 相互協助下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언 7. 교양교육과정에서 統合科目의 개설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고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현행 교양교육과정의 대부분은 그 내용이單一學問의 概說的인 概念 紹介 敎科科目으로 되어 있는 바, 그것이 다른 학문과의 관련 속에서 統合的인 眼目을 기르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敎育科目의 細分化를 초래하여 科目數의 過度化와 科目間의 斷絶現象을 야기하게 되었지만, 敎養敎育의 중요한 目的은 全人으로서의 人格統合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복잡한 課題解決에 필요한 綜合的인 能力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科目間의 연결과 統合性을 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과정에서 總合科目 또는 複合科目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科目은 그 구성이 特定學問의 概說的 內容보다는 主題나 問題中心으로 이루어지고, 발표 토론, 개별탐구, 팀 티칭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면 매우 效果的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 8. 교양과목의 이수 는 下級學年 集中履修의 방식에서 全學年에 걸쳐 均衡履修토록 하는 分散履修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앞에서

도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교양과정은 縱的·橫的인 면에서 다른 과정의 과목과 연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과정은 이러한 수직·수평적 연계성 결핍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교양과목은 성질상 專攻探索을 위한 基礎科目과 一般敎養科目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下級學年에서만 이수시키는 것은 교양과목이 形式的이고 姑息的인 상태를 면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기초과목은 專攻履修前 下級學年에서 이수토록 배정하고 一般敎養科目은 학년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上級學年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問題나 主題를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學年 制限 없이 풍부한 내용의 敎育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언 9. 敎養科目의 경우 學級規模(한 강좌에서 강의 듣는 학생수)를 축소하거나, 大型化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講究가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교양과목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는 전임교수 부족 및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大單位 講義를 운영해 오고 있다. 물론 과목의 性格에 따라서는 大單位 講義로도 훌륭한 學習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목이 100명 이상일 경우, 學級當 人員數를 줄이거나 이를 지원할 助教의 採用, 새로운 敎授·學習方法의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

제언 10. 敎授方法의 개선이 요청되는 바, 특히 注入式 說明에만 의존하는 敎授方法에서 탈피하여 學生이 中心이 되어 보완하고 토론하고 과정을 이수하는 등 多樣한 方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知的 成長과 人格的 變化에 큰 의미를 주는 學習狀態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敎授方法들의 적용을 통한 意味 있는 敎育을 위해서 컴퓨터의 활용을 위시해서 각종 視聽覺器材 확충과 圖書館의 量的 補充이 적절히 요구된다. 敎育改善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長時間에 걸친 인내 있는 研究開發活動과 충실한 財政投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제언 11. 교양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을 提高하고, 교양교육 擔當教授陣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교양교육의 價値나 重要性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교수나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輕視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수나 학생들이 교양과목이 學問的 成長이나 學業成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是正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教授陣을 강화하는 일이다. 大學 經營哲學이 바뀌어야 하고, 傳統的이고 姑息的인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현대를 사는 人間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자 하는 知識人들의 共同探究의 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人類文化와 思想과 生活方式에 도전하고 새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열이 넘치는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언 12. 전공제도를 보다 多樣化시키고, 活性化하여 졸업 후 진로에서의 有用性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경우를 보면 副專攻 및 複數專攻制度를 다소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單一專攻만을 함으로 인해 사회에 나가 柔軟性과 融通性이 결여된 상태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副專攻 및 複數專攻制度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앞으로는 間學問 專攻制度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언 13. 모든 教育內容은 社會的·時代的 適合性을 살려 재구성되어야 한다. 대학은 구체적 인 歷史的 社會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 본래의 研究 및 教授機能이 그 사회 및 시대적 모습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게 되며, 또 이 關係가 調和的으로 이루어질 때 大學은 그 사회와 시대를 先導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教授內容은 발전되어 가는 사회와 遊離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대학의 각 學問領域에서는 변화하는 社會 및 時代的 現象을 科學的인 調査를 통해서 치밀하게 파악하여 教育內容이 사회 및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언 14. 大學教育課程 改善의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大學行政體制가 완전히 教授支援體制로 탈바꿈해야 한다. 기존 행정체제나 現行法規에 맞게 教育課程을 改善한다는 것은 개선을 안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教育의 內容과 方法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行政體제도 法規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大學의 행정도 법규도 最上의 教育을 支援해 주기 위한 것이다. 行政的 便宜 때문에 教育이 내용과 방법이 制約을 받아야 했던 우리나라 教育行政風土에 一大 轉換이 있어야 한다. 教育 自體는 教育의 專門的 知識가 大學運營의 全權과 責任을 진다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